

건설근로자공제회, ‘26년 건설근로자 쉼터 상담·교육 중심 운영 강화

- 방문자 증가·상담 확대 성과 바탕으로 요일별 전문 상담 프로그램 신설
-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건강증진·디지털 역량 강화 목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는 2026년 ‘건설근로자 쉼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1월 서울지사가 마포구 도화동 일진빌딩 3층으로 이전하면서 같은 위치에 ‘건설근로자 쉼터’를 개소했다. 지난 2년간 쉼터 방문자 증가와 상담 서비스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상담·교육 중심의 운영 체계 강화에 나선다.

2024년 쉼터 방문자는 5,694명, 2025년에는 6,528명으로 14.6% 증가했다. 월평균 방문 인원도 474명에서 544명으로 늘어나며 쉼터가 건설근로자에게 점차 필수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쉼터 내 상담 서비스 역시 확대됐다. 2025년 노무 상담은 총 96건으로 임금체불(39.6%)과 산업재해(30.2%)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같은 해 5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변호사 법률 상담은 31건에 달했으며, 민사 분야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상담 참여 인원도 200명에 달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수요가 확인됐다.

2026년 쉼터 운영 방향은 상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제공과 근로자의 일상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정례화하는 것이다.

요일별 무료 전문 상담 프로그램도 새롭게 편성됐다. 월요일에는 혈압·혈당 검사와 생활 습관 개선을 돕는 건강상담이 진행되고, 화요일에는 세무사 상담이 신설돼 퇴직소득세와 상속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다. 수요일에는 공인노무사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관련 상담을 맡으며, 목요일에는 변호사가 민사·형사 등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금요일에는 서울시와 협업해 디지털 안내사가 스마트폰·키오스크 활용법을 교육한다.

공제회는 이번 운영계획을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 △건강 증진 △디지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현장 애로사항 및 일상생활에 대한 전문 상담을 강화하고, 고령 근로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설 현장 근무 중에 쉼터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건설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 쉼터(35인승 버스)를 운영 중이며, 복지서비스 상담 및 접수와 더불어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에 대한 전화 상담 예약을 받아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권혁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2년간 쉼터 운영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상담·교육 중심의 운영을 강화해 쉼터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종합 복지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지급과 무이자 대부사업을 비롯해 3종 7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관리(단체보험·종합검진), 가족친화(결혼식 지원·휴가 지원), 자녀교육(초·중·고 교육비 및 대학 장학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단체보험에 치매·간병 보장을 추가하고, 전국 주요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붙임 1. 관련 포스터 1부.

2.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 소개 1부.

담당 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책임자	부 장	김희택 (02-519-2090)
		담당자	과 장	방정수 (02-519-2091)









2026년 건설근로자 쉼터 운영 안내

📍 운영시간 | 평일 08:00~17:00(상시 개방)
📍 운영장소 | 서울지사 쉼터

📍 찾아오시는 길 | 서울지하철 5호선 마포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분, 우리은행 건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5, 일진빌딩 3층)

• 요일별 쉼터 무료 운영 프로그램 •

구분	프로그램	업무협업	운영시간
공통	식음료, 충전기, 체지방 측정기, 혈압계, 민원 PC 및 프린터 등 각종 편의시설 제공		08~17시 (1월~12월)
 월요일	근로자 건강상담 운영 (간호사 및 운동 처방사)	근로자 건강센터	2주 월요일 10:30~12:00 4주 월요일 09:30~12:30 (1월~11월)
 화요일 신설	세무사 상담서비스 운영 (국세, 지방세 등 상담)	김욱형 세무사 홍성원 세무사	매주 09~12시 (2월~11월)
 수요일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 운영 (노동관계법령 등 상담)	전호중 노무사	매주 09~12시 (3월~11월)
 목요일 확대	변호사 상담서비스 운영 (민사, 형사 등 생활법률 상담)	황서현 변호사	매주 09~12시 (2월~11월)
 금요일 신설	디지털 안내사 운영 (서울시 디지털 안내사 선발 및 배정)	서울시	매주 10~12시 (2월~11월)

※ 다만, 프로그램, 업무협업, 운영시간 등은 업무 여건에 따라 추가 및 변경 가능

문의전화 02-519-2109 또는 02-519-2095

[포스터] '2026년 건설근로자 쉼터 운영 안내'

<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 소개 > :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 (설립목적)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 복지증진, 직업능력 향상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설립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주요기능
 - (퇴직공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에 대한 공제부금 수납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 지급*
 - * 퇴직공제금 적립 및 지급 대상 : “건설일용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포함)”
 - (부금운용) 건설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 자산의 증식
 - (복지지원) 3종(건강관리·가족친화·자녀교육) 7개 복지서비스(단체보험, 종합 건강검진 등) 지원 등 생활 안정 지원 (아래 ‘표’ 참조)
 - (훈련취업)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및 취업 지원

※ 【참고자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복지지원」 현황

구 분		퇴직공제 및 복지지원	주요 혜택 ^{주)} (2026년)
퇴직공제	생활안정	퇴직공제금	· 건설 현장 퇴직 시 적립된 “공제부금+이자” 지급
		무이자 대부사업	· 적립된 공제부금에 대한 반액 한도 무이자 대출
복지지원	건강관리	단체보험 가입	· 암진단비, 골절수술비 등 23개 항목 내외 보장
		종합 건강검진	· 1인당 25만원 내외 지원
	가족친화	결혼식 지원금	· 60만원 현금 지원
		근로자 휴가 지원	· (유형1) 40만원 상당의 휴가샵 포인트 지급(마감) · (유형2) 호텔(3~5성급) 및 리조트 휴양소 숙박 지원
	자녀교육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 20만원 현금 지급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 30만원 현금 지급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근로자 본인, 대학생 자녀)	· 200만원 현금 지급(1학기 접수 마감)
	전문상담지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 매주 목요일 09~12시, 서울지사(건설근로자 쉼터)
		세무사 무료 상담	· 매주 화요일 09~12시, 서울지사(건설근로자 쉼터)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 매주 1회, 전국 7개 지사(지사별 운영시간 상이)

주) 복지지원 : (유형2) 호텔 및 리조트 휴양소 숙박 지원(6월 개시 예정), 주요 혜택 ‘변경 가능’